

장백산천지

제28호

2007년 4월 13일

금요일

《중국인민》은 중공의 자민이 아니다

중공의 사악한 폭정을 질책하는 일부 정의 인사들은 늘 습관적으로 중공이 《중국인민》을 박해하는 것을 중공이 자신의 인민을 박해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황당한 당문화의 사유습관이다.

중공은 인간세상에서 제일 사악한 정치류망 집단으로서 중생을 훼손하고 있으며 《중국인민》은 절대다수가 《진선인》에 동화될 대법제자로서 중생을 구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인민》과 중공악당은 분명 대립된 우주 정사력량이 인간에서의 체현이며 《중국인민》은 종래로 중공의 자민이 아니었다.

수십년동안 중공의 독재통치 하에서 자유와 민주를 잃은 무고한 《중국인민》은 대기근에서 굶어죽고 수차례의 정치운동에서 살해당했으며

그 수가 무려 8000 만명이 되며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수보다 많다. 또한 법륜공학원생체장기 적출만행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공은 《중국인민》의 《어머니》이고 《중국인민》은 중공의 자식이라고 뻔뻔스럽게 말할수 있는가? 중공은 《중국인민》의 《살인백정》이고 《중국인민》은 중공의 《노복》이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습관적으로 《중국인민》을 중공자신의 인민으로 여긴다면 의심할바없이 중공악당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이며 중공의 멸망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중공이 아무리 온갖 미혼술을 쓴다해도, 《9 평》과 《3 퇴》의 대조류속에서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더는 감출수 없다. 날로 각성하고 있는 《중국인민》은 당문화의 독소를 점차 숙청하고 있으며 중공은 곧 붕괴될 것이다.



최근에 **니불은 멸당표어**



인민폐에 쓴 퇴당성명



알림

<장백산천지>신문은 매주 금요일전에 <명혜망>진상 자료전단지에 발표하오니 본주에 전번주에 것을 다운로드 하지 말고 본주의 것을 다운로드하기 바란다.

<장백산천지>편집부 2007년 3월 28일

진상자료를 보는 파출소 소장

산둥성위방지구의 모진 파출소 소장이 반달에 한번씩 대법제자의 집에 가서 법륜공진상자료를 가져가곤 한다.

어느날, 그는 진상자료를 가져가면서 대법제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놓으시오. 내가 이 집에 있는한 누구도 당신들을 붙잡으려 오지 않을 것이요.》

한 경찰의 선택

한 촌민이 파출소에 가서 《한 두부집 법륜공학원이 한밤중에 밖에 나와 현수막을 걸어놓았다오.》고 검거했다. 진상을 잘 알고 있는 경찰은 대뜸 그를 꾸짖었다, 《밤 두시가 되면 두부를 만드느라고 한창 바쁠텐데 현수막을 걸 시간이 어디 있겠소. 빨리 가시오. 관할하지 않겠소.》 그는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갔다.



**명혜위성텔레비전방송국에서
매일 방송을 시작**

명혜위성텔레비전방송국은 2007년 3월 5일부터 유럽주위성통신공사 W5 호위성에 등록되어 아세아주 특히는 주로 중국대륙과 대만에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7105 천헤르츠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6030 천헤르츠로 방송하고 있다. 많은 분들의 시청을 바란다.



신은 회개하는 사람을 돕는다

1. 떨어졌던 눈썹이 다시 자라났다.

설고훈(薛孤訓)은 행군창조(行軍倉曹 역주: 군대가 이동할때 식량보급을 담당하는 관직명) 직책을 맡고 당나라 정관(貞觀) 20년(서기 644년)에 그는 원정군을 따라 구자국(龜茲國)을 토벌하러 갔다. 그 나라의 어느 사찰에서 그는 그 곳에 있던 불상(佛像)의 황금을 모두 굶었다. 그러나 반달도 못돼 그의 눈썹이 모두 떨어졌다. 이주(伊州)에 돌아오니 고향 노인들이 그에게 알려주었다.

《이는 신불(神佛)에게 죄를 지어 당신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그는 이 말을 듣고 불상 앞에 가 죄를 참회하고 허물을 고치겠다는 결심을 표시했다. 동시에 굶어 온 황금을 몽땅 사찰에 헌납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눈썹이 다시 자라났다.

2. 병어리가 다시 말을 했다.

구룡의(勾龍義)가 당나라 목종(穆宗) 장경(長慶 821-824) 연간에 외지에서 일할 때의 일이다. 한 고향사람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병문안하러 갔다. 그 고향사람이 《금강경》을 베껴 쓰는 것을 보고 그는 베껴 쓴 경문을 빼앗아 찢어버린 다음 땅에 던지면서 고향사람보고 더 이상 베끼지 말라고 권했다. 그는 귀가한 그날로 말문이 막혀 병어리가 되었다. 몇몇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모두 치료하지 못했다.

5,6년이 지난 후 그는 갑자기 이웃에서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읽는 것을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은 경을 읽는 것을 좋아하니 어쩌면 정말로 다 쓸모가 있을 지도 모른다. 내가 병어리가 된 이 병을 얻은 것도 전에 진경(眞經)을 비방하고 훼손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만약 지금부터 잘못을 참회하고 평생 신봉한다면 혹시 다시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후부터 그는 다른 사람이 경을 읽으면 서서 조용히 들었다. 한달이 지나자 그는 마치 자신도 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아울러 마음속으로 몹시 경을 읽고 싶었다. 며칠 후 그가 우연히 어느 절에 가서 한 늙은 중(老和尚)을 만났다. 그가 앞으로 나가례를 갖추면서 입을 가리키며 자신은 병어리인데 경을 읽고 싶다고 했다. 늙은 스님은 작은 칼로 그의 혀끝을 단번에 잘랐다. 그가 막 《아야, 아파죽겠네!》라고 생각하자 바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고인(古人)들은 《미혹되었어도 돌아올 줄 안다면 도를 얻는 것이 멀지 않다.》, 《사람이 어찌 허물이 없겠는가? 허물이 있어도 고칠 수 있다면 그보다 선(善)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어제의 잘못>과 고별하고 신불(神佛)을 공경하여 아름다운 미래로 향할 것을 희망한다.

따파하오를 외운 젊은이 탄광사고에도 무사

지린(吉林)성 징위(靖宇)현 탄광에서 채굴에 종사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다. 모두들 알다시피 중국의 탄광은 아주 위험한 곳으로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재해로 인한 인명손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젊은이는 부모님이 모두 대법을 수련하여 평상시 부모님께 늘 ‘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眞善忍하오(眞善忍好)’를 외우면 흉한 일을 만나도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을 들어왔다.

어느 날 석탄을 채굴하던 도중 갑자기 갱도가 무너져 순식간에 큰 돌이 머리위에서 떨어져 내려왔다. 같이 일하던 4명의 광부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그가 죽었을 거라고 여겼는데 뜻밖에 “빨리 나 좀 꺼내줘!”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4명의 광부들이 그의 몸 위에 있는 큰 돌을 치우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다른 2명을 더 불러 6명이 힘을 써서야 겨우 돌을 움직일 수 있었다. 나중에 이 젊은이는 “당시 내 머리 위로 돌이 떨어지면서 숨을 쉴 수 없었고 허리가 참을 수 없이 아파 거의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때 바로 ‘法輪大法好, 眞善忍好’를 외우자 갑자기 통증이 감소 되었어요. 파룬따파가 내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주변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신기한 일이라고 했다.



《9 평》의 현실적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중공의 위해성은 단순한 의식형태문제가 아니고 정치체제문제도 아니다. 중공은 중국인민의 생태환경과 도덕을 훼손시켰고 더욱 엄중한 것은 국내외에 진상을 은폐하고 기만하고 유인하는 수단을 써서 세상사람들로 하여금 그 위해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9 평》은 중공의 거짓허울을 벗겨버렸고 사람들에게 생태환경과 도덕을 중시하게 했고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까발려주었고 탈당하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것을 제시해주었다.

《9 평》은 중화민족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방사회로 하여금 중공은 정교(正敎)의 걸림돌임을 인식시켜주었다. 만약 중공을 소멸하지 않는다면 전반 사회는 계속 탐오, 기편, 절도, 유인, 부패, 독품, 기생, 폭력, 강패, 살인 등 현상들이 만연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재난과 불행을 가져다줄 것이다.

《9 평》은 9개의 원자탄마냥 폭발하여 전 인류의 사상에 큰 파문을 일으킨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악한 중공을 철저히 몰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해방받은 중국인민들은 자유와 민주, 평화속에서 온갖 재난과 불행 없이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

